

01 교회소식

교회 창립 30주년, 하나님께 영광을

지난 10월 7일,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성대한 축하공연이 열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02 생명의 말씀\_ 사랑하시는 제단

이 땅에 펼치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리 속에 만민 제단을 친히 이끄시며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03 인터뷰

“말씀과 권능, 찬양이 살아 있는 곳”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만민 사역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해 창립 30주년 축하행사에 참석한 해외 인사들의 소감.

04 화보

축하공연 ‘하늘과 땅’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연출하며 이 땅에서 경작받은 자녀들의 감사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동의 무대.

# 만민뉴스

제553호 2012년 10월 1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곳에!

###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공연



30년 전, 세계 만민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세워져 표적과 기사, 하나님 권능으로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며 초대형 교단으로 성장한 우리 교회는 10월 7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작점에 섰다. 화려한 대형 무대와 와이어 액션, 레이저 빔 등 특수효과로 감동을 더한 축하공연은 GCN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생방송됐다(사진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 ①, 축하하는 NRB 회장 프랭크 라이트 박사 ②, 본행사 '하늘과 땅' ③, 포토존 ④, 전야행사 '하나님께 영광' ⑤~⑦).

전 세계 1만여 자·협력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에 힘쓰는 만민중앙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7일 기념예배를 드리고 축하공연으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오전 대예배 시 '사랑하시는 제단-하늘'(사 60:1-3)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서는 지난 30년간 이 제단에 하늘 곧 영의 세계를 펼쳐 보이시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권능,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준 높은 찬양 문화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설교했다.

오후 기념예배 시에는 대예배에 이어 '사랑하시는 제단-땅'(사

60:1-3)이라는 제목으로 "땅 곧 육의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하늘의 일들을 보여 주신 것은 연단을 통해 성결을 이뤄 하나님을 닮은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전했다.

설교 후 NRB(세계기독교방송인협회) 회장 프랭크 라이트 박사는 축사를 통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주저하고 있는데, 만민중앙교회는 하나님 권능을 통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 세계에 전하는 아주 특별한 교회다."라고 말했다.

기독교세계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이종만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친 뒤, '하늘과 땅'이라는

주제로 2부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예능위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곡들로 창립 30주년을 맞이까지 만민 제단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의 천군 천사와 이 땅에서 경작받은 성도들이 어우러진 작품들로 연출했다. 이번 공연은 스태프를 포함해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약 60분간 진행됐다(관련 화보 4면).

불가리아의 키릴 스빌레노브 박사는 "여느 것과는 다른 공연에 매우 큰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공연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싱가포르의 위마리 목사는 "천상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천국이 너무 사모됐다. 천국을 소망케 하는 이런 아

름다운 공연은 전 세계로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성도들은 공연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향을 느끼며 새 예루살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 더욱 신속히 성결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에는 국내외 기독교 언론인들과 장·관계 및 교계 인사, WCDN(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 인사들과 미국, 중국, 케냐, 인도, 독일, 페루 등에서 온 내빈들이 참석했다. 교회 야외 주차장에는 성도들과 초대받은 일가친지들을 위해 다양한 먹거리와 기념사진 촬영을 위한 포토존이 마련돼 행복을 더했다.

한편, 10월 5일 금요일야예배

시에는 개척 때부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급성장을 이룬 우리 교회 30년 역사를 담은 만민 매거진 특집 '믿음으로 걸어진 길'이 상영됐으며, 2부 시에는 전야행사로 '하나님께 영광' 공연이 있었다. 예배 전에는 천국의 회원으로 꾸며진 야외 특설무대에서 아동과 적대의 특주가 있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전야행사를 통해 "7월 개척 30주년 기념예배 이후로는 그동안의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었으며, 창립 30주년 기념예배를 기점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격적인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날 사업부에 큰 축복을 받은 성도들의 간증이 이어져 이를 실감케 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라나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1~3)

# 이 땅에 펼치신 하나님 사랑

는 자녀들을 간절히 기다리시지요.

지난 30년간 하나님께서는 본 제단에 무수한 하늘의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영의 세계를 신령한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알려주셨지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무수한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내심으로 그 모든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찬양을 통해서 영의 세계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체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풀어주시는 말씀마다, 나타내 주신 권능의 역사마다 또 찬양 가사와 음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지요. 이는 모든 성도가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반드시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나오기 원하시는 간절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하늘의 일들을 펼쳐주셨다 해도 그것만으로 성도들이 저절로 변화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공의에 따라 연단받는 시간이 필요하고 힘쓰고 애써서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야 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이를 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았으면서도 자기 생각이나 유익에 맞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영적인 깊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걸려서 떠난 사람들도 많았지요. 결을 지키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생명의 위협 앞에 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 모든 연단의 시간을 보낸 후 주님의 부활 승천을 목도한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 속에 급속히 변화했습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진리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됐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순간에 변화시키고 권능을 주셔서 사도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나름대로 신뢰한다 했지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기까지는 각자 연단의 과정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 2.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 기간을 주신 하나님

오늘날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결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곳은 없다시피 합니다. 성경에는 “거룩하라, 온전하라.”(레 20:26, 벰전 1:15~16, 마 5:48) 수없이 명하셨지만, ‘어떻게 사람이 성결될 수 있나, 단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과 온 영이라는 말의 개념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단을 택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성결’의 표본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반석 이상의 믿음에 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봐도 온 영의 사람들은 한 세대에 한 명이 나오기도 쉽지 않았지요. 기본적으로 중심이 좋아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발견하고 깨뜨려 나가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단의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 속에서 중심을 변화시키시고, 신속히 영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개혁 이후로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을 볼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매주 나타나는 큰 권능의 역사들을 보면서 충만하게 신앙생활했고 믿음도 쑥쑥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평안할 때는 모두 진실한 것 같지만 연단의 때에는 참과 거짓이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1998년과 1999년의 교회적인 시험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만한 것 같았지만 큰 시험의 태풍이 불자 알곡과 쭉정리로 키질하듯 갈라졌지요. 믿음의 할례는 하지 않고 겉으로만 충만한 신앙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해 죄를 버려온 신앙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 타협하는 신앙과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지키는 굳건한 신앙으로 갈라졌지요. 이 시험을 통해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분별해 정립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셨습니다. 연이은 해외성회를 통해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셨지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권능이 점점 크게 나타나는데 성도들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성장 속도가 둔해지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가 영을 사모해 열심 낸다고 했지만 무엇인가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지었던 죄의 담이 헐어지지 않으므로 믿음의 성장이 더딘 경우도 있었지요. 혹은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변질돼 세상을 바라봄으로 사랑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각자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영의 세계를 듣고 알아도 영계를 뚫어 들어갈 수 없었지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하니 죄를 버리는 것이 더디고 자기 의와 틀을 깨뜨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2010년 12월 25일, 일대 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죄의 담이 헐어지고 믿음의 정체를 가져온 근본 문제들이 해결되자 이후 비약적인 믿음의 성장을 가져왔지요. 마음 깊이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기에 단순한 회개의 차원을 넘어 반석 이상, 영과 온 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펼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대다수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 이상에 서고, 더 나아가 믿음의 평균이 영에 가까울 때가 올 것입니다. 세계 선교와 대성전 건축이라는 큰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난 30년을 하루 같이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신속히 성결의 열매로 나와 마지막 때 썩리를 이뤘드릴 수 있는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제단에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섭리 속에 친히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순간도 의미 없이 지나온 때가 없었지요. 때로는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때로는 먼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왔습니다.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셨는지, 또 앞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열정과 각오가 여러분 안에서 더욱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 1.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일찍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의 낙원을 보고 영의 세계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한 번 본 것만으로도 육이 얼마나 무익한지 깨달았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 남은 생애를 바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늘에 속한 것, 영의 것을 찾기 원하십니다. 무익한 육에 속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나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대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아침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렬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 Opening

하나님의 웅대한 섭리를 표현한 연주를 시작으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선율을 타고 흐르는 천사들의 무용, 축하사절단의 힘찬 행진, 축하공연을 알리는 팡파르 순으로 진행된 Section 1 오프닝



# 교회 창립 30주년 축하공연 '하늘과 땅'



# Heaven

만민의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는 하늘 천사장과 천사들의 무용과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Section 2 하늘



# Earth

이 땅에서 경작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올려 드리는 무용과 찬양을 궁중 연회와 백성의 흥겨운 잔치 분위기로 연출하며, 끝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린 Section 3 땅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각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량만민교회 충북 괴천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전사거리 20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3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심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920-4512, 010-3343-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진주만민교회 전북 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도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남제주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곡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경기도 분당구 아람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

| 불가리아 |  
이반 하자르바사노브 목사

“이재록 목사님은 매우 겸손하시고 설교는 파워풀했습니다”

저는 불가리아 목회자이며 현재 15개 정도의 지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작년 호주에서 개최된 WCDN 제8회 국제 기독교 콘퍼런스에 약학 교수인 저희 성도가 참석해 만민의 사역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권능을 사모해서 만민중앙교회를 처음 방문했는데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매일 기도하는 성도님들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은 매우 겸손하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많은 사

람을 사랑하며 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설교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로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 주셨지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저희 부부는 특히 창립 30주년 축하공연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옮겨 놓은 듯한 아름다운 공연은 훌륭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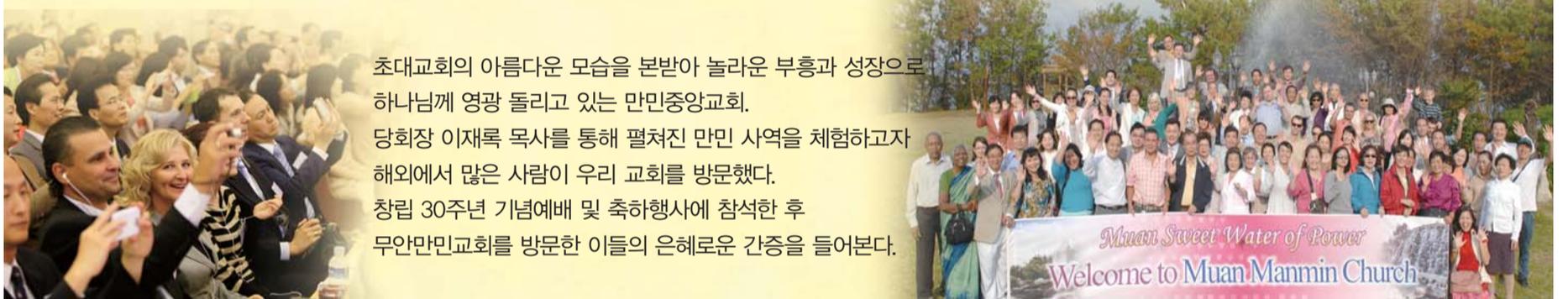
한 교회에서 오케스트라를 보유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만민중앙교회 닛시오케스트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음악 파트를 담당하는 아내는 공연을 관람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



끼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매우 순수한 찬양과 무용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절감했

지요. 우리 교회 젊은이나 어린이들에게 이 공연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무엇인지 가르치고자 합니다.

## “만민중앙교회를 만난 것이 최고의 행복!”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놀라운 부흥과 성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펼쳐진 만민 사역을 체험하고자 해외에서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창립 30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행사에 참석한 후 무안만민교회를 방문한 이들의 은혜로운 간증을 들어본다.

| 인도네시아 |  
엘리 타누위자야 목사

“천국에 있는 듯 행복과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저는 남편 루훗 목사가 담임하는 복음전도교회 시무 목사입니다. 2년 전, 남편은 만민중앙교회 본당 휴거 그림을 본 뒤 중증 천식을 치료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또한 이재록 목사님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저희 교회 성도들을 기도해 줄 때 갖가지 질병들이 치료돼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권능’ DVD에 담긴 이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도 성도들이 문제 해결받고 갖가지 질병

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7년 전, 저희는 한 성도가 건네준 이재록 목사님 저서 『천국』과 『지옥』을 읽게 됐습니다. 그 후 실존하는 사후세계를 피부로 느끼며 이 저서들을 전하고 있지요. 또한 인니어 판 ‘만민뉴스’도 이웃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느냐’며 기뻐하십니다.

저는 무려 7년 동안 기도로 준비한 이번 방문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이 성도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느끼며 목회자로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창립 30주년 축하공연을 보면서 천국에 있는 듯 행복과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의상, 소품까지 매우 예술적이고 환상적이었지요. 천국을 소망케 하는 이런 공연을 우리 교회에서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 미국 |  
세르게이 마티늉 성도

“시종 하나님 사랑과 주님 은혜가 넘치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재록 목사님이 인도한 ‘2006 뉴욕 연합대성회’를 앞두고 만민중앙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당시 성회 준비 차 미국에 오신 김진홍 장로님의 손수건 기도로 우측 다리 수술 후유증을 치료받았지요.

‘뉴욕 연합대성회’에 참석해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펼쳐진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보며 제 신앙은 새로워졌습니다. 이후 ‘십자가의 도’ 설교 등을 들으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천국을 침노해 감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 ‘천국 처소의 분류’, ‘믿음의 분량’ 등 신앙생활의 키포인트를 알려 주심으로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방문은 시종 하나님 사랑과 주님 은혜가 넘치는 일정이었습니다. 사랑스런 성도님들에게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고,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진정 영혼을 사랑하시는 참 목자라는 감동이 밀려 왔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찬양과 무용, 연주곡으로 기획해 선보인 창립 30주년 축하공연 ‘하늘과 땅’을 보며 감동으로 온몸에 전율을 느꼈고, 천국 소망이 더해졌습니다.



| 일본 |  
야마네 기요코 성도

“무안 단물터에서 영의 세계를 체험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를 만난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 여겨집니다. 성도들의 사랑, 천국을 소망케 하는 공연 등 너무 행복해서 말로 다 표

현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바뀐 무안단물터를 방문해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이번 창립 30주년 축하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에서 오신 분들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부분 영안을 열어 주셔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선지자들의 모습과 성령의

검, 그리고 황금빛 보석과 하늘에서부터 세계 이어지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해 주위에는 말씀의 검 모양이 가득 보였고, 푸른빛과 오색 빛, 큰 나무 모양의 황금빛도 보였지요.

이 체험을 통해 영의 세계의 존재를 알게 돼 천국 소망이 더해졌습니다. 무안단물에 일곱 번 침수한 뒤에는 어깨 결림과 눈 피로, 다리 부종을 치료받았습니다.